

새롭게 시작하는

박원호 목사의

12단계 성경공부

1단계 교재

01	12단계 성경공부 오리엔테이션	2
02	왜 인간은 신앙을 갖는가?	18
03	성경공부의 목적, 하나님 나라	34
04/05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	45
06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	70
07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84
08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98

첫 번째 시간

12단계 성경공부 오리엔테이션

왜 12단계 성경공부입니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제야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목회현장에서 선포하면서 이 책을 준비했습니다. 배울수록 부족함이 많음을 더욱 깊이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부족함이 많음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용기를 내서 이 책을 써야할 때가 되었음을 느낍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업적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린 한국교회, 이 땅에 소망을 준 한국교회, 우리 모두를 축복한 한국교회, 우리의 생명인 한국교회.... 그 교회를 다시 살려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문제없는 교회를 찾는 것이 더 나을지 모릅니다.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보다 회복하는 것이 몇 배 더 힘이 듭니다. 이제 저와 함께 먼 길을 걸을 것입니다. 힘든 여정입니다. 걷기도 힘들고, 함께 하기도 힘들고, 계속하기도 힘든 여정입니다. 그러나 가야할 길입니다. 길을 가되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하고, 어

디서 쉬어야할 지도 알아야 하고, 왜 가야할 지도 알아야 합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나라입니다. 저는 성령의 도구로 쓰이기를 원합니다. 저로서는 온 힘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지식, 저의 경험, 저의 소망을 다해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신학교 교수로서 11년을 사역했습니다. 목회 한지도 벌써 15년이 흘렀습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목회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나라 여행가이드로서 준비시켰던 기간이었습니다.

목회현장에 나오면서부터 저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교하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애썼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을 만들려고 온 힘을 다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노력은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할 뿐입니다.

이 책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되 가능하면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와 성도의 삶의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이 책이 염두에 둔 독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백성입니다. 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했던 아니든, 교회를 섬기든 세상을 섬기든, 기독교신앙에 최근 입문했던 오랫동안 신앙을 가졌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것만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길이라는 확신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다시금 말씀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며 온전하게 성경을 바라보며 기도로 헌신할 때 우리는 겨자씨와 같이 푸르른 나무가 되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고 그때 떠났던 새들이 돌아올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경

한국교회는 성경공부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설립초기부터 성경에 대한 열정으로 교회가 시작되었고, 오늘까지도 그 열정으로 역사와 생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성경공부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점점 식어지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마다 성경공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성경말씀에 따라 살려는 노력도 약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나타나는 성경에 대한 무관심은 심각할 지경입니다. 물론 성경에 관한 자료가 많아짐으로 인해 지식은 훨씬 증가되었을지 모르지만 지식의 증가가 성경에 대한 헌신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 유니언신학교의 엘리자베스 악트마이어 교수의 말입니다.

“30년 동안의 신학교교수 시절 동안 제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도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교육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설교단에 서는 목사들은 교인들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설교해야 합니다. 신앙의 언어, 성만찬의 의미, 기독교회의 기본교리들은 평범한 교인들(church-goer)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최근에 유행하는 의식을 따를 뿐, 우리를 신앙으로 묶어주는 성경적 이야기를 모릅니다. 개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기에 뿌리도 없고 종교적인 역사도 없고, 어떤 반

석이나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시대의 도전들

1) 급격한 변화

성경에 대한 헌신이 예전과 같지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급격한 변화로 특징 지워지는 시대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변할 뿐 아니라 급격하게 변합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진리였던 것이 오늘은 진리가 아닌 것으로 변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흐름은 성경에 대한 엄청난 도전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에게 성경만은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 이성주의

다음으로 이성주의의 영향도 말해야 합니다. 데카르트 이후의 이성주의는 인간의 근본을 이성에 둬으로써 모든 것을 이성의 관점으로만 대하려고 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논제는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기독교 신앙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주장입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성주의는 성경이 증거하는 믿음이나 신비 또는 초월적인 면을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임스 스마트는 교회의 성경에 대한 안타까움을 그의 책, “교회에서의 성경의 이상한 침묵(The Strange Silence of the Bible in the Church)”에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과 의지가 우리의 계획과 행동을 다스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따라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 우리의 목적을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을 잊어야 하며 우리가 가진 것을 잊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살고 하나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분의 지혜와 뜻이 우리의 행동을 다스리도록 해야 합니다.”

3) 이기주의

이기주의 또한 성경의 권위에 큰 도전이 됩니다. 성경은 공동체를 근본으로 하며 공동체를 강조합니다. 인간은 더불어 살아야하는 존재이며 자연과 공존해야 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은 이웃과 자연을 함께 포함합니다. 이기주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근본적으로 배치됩니다.

4) 다원주의

다원주의는 그 어떤 것보다 영향력이 큼니다. 세계가 지구촌마을(global village)이 되어가는 다문화시대에 성경만이 진리이며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기독교의 주장은 자칫 독선이나 아집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여러

진리 가운데 하나이며 기독교의 구원도 여러 구원 가운데 하나라는 주장이 훨씬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결코 진리가 여럿이라거나 모든 진리는 상대적이란 뜻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진리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성경말씀 자체가 상대적이란 말은 아닙니다.

5)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마지막으로 새로운 미디어가 끼치는 영향도 지적해야 할 것입니다. 15세기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의 발명으로 책이 본격화되면서 성경은 “책”이라는 형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 “책”입니다. 하지만 동영상, 인터넷, SNS 등의 다양한 미디어가 활용되는 세대에서 활자로 된 성경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책을 사용하는 사람과 영상을 사용하는 사람은 너무나 다른 사람입니다. 책은 논리와 객관성을 강조하고 대신 영상은 감정과 이미지를 강조합니다.

6) 교회의 내적인 필요

이제 교회 내적인 요인으로 눈을 돌려 보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교회에서 창립 50주년을 맞으면서 자체적인 성경공부를 개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당시 교회 내에 약 40여개의 성경공부과정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공부간의 연결도 없고 방향이나 목표도 없이 진행되었기에 성경공부의 능력은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이유들이 12단계 성경공부를 시작한 배경입니다.

12단계 성경공부의 특징

1)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성경공부

12단계 성경공부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하나님 나라 중심이란 성경 공부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바리새인처럼 성경 자체를 우상화하거나 사두개인처럼 성경 지식 자체는 목적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그 나라에 헌신하는 백성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2) 전체를 한 눈에!

12단계 성경공부는 처음부터 전체의 여정과 내용을 보여주며 시작하는 공부입니다. 각 단계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으며 단계를 지나가면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모습을 이루어갈 것입니다. 따라서 각 단계의 의미를 알도록 하며 여정이 어떻게 나아가느냐를 머릿속에 간직하도록 함으로 중간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3) 목회적인 성경공부

12단계 성경공부는 목회적 차원에서 개발된 교재입니다. 처음부터 목회현장에서의 성경공부 실태조사에서 출발해서 목회현장에서 실천되도록 준비되었습니다. 이 교재를 개발한 저자도 한 때 신학교교수였지만 2000년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를 만들면서도 끊임없이 목회현장을 생각했습니다.

4) 성경적인 성경공부

흔히들 성경공부라고 하면 성경 자체만 공부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는 성경 본래의 모습과 모순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빈 공간에 주어진 계시가 아닙니다. 항상 시대와 깊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성경적으로 공부한다는 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갖는 시대적인 의미와 깊은 만남을 요구합니다.

5)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경공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며 성령의 도움으로 해석되고 가르쳐져야 합니다. 12단계 성경공부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6) 쉽이 있는 성경공부

12단계 성경공부는 3개월을 한 단계로 하며 1개월을 방학으로 진행합니다. 이로써 단계를 마치는 성취감을 갖도록 하는 한편 다음 단계를 기대감으로 기다리도록 합니다.

7) 성경은 오늘도 진리

성경은 2000년 이상 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구시대의 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도 우리가 순종할 살아있는 말씀이며 우리 시대에 더욱 순종할 말씀입니다. 비록 문화나 사회구조나 삶의 형식과 같은 외형적인 면은 다를 수 있지만 그 배후에 흐르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영원한 진리임을 고백합니다.

8) 12단계 성경공부의 소망

12단계 성경공부의 소망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을 정립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심입니다.

지은이 소개

12단계 성경공부를 개발한 박원호 목사는 현재 주님의 교회(잠실 소재) 담임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으며 이전에는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교수, 뉴욕 롱아일랜드 소재 아름다운교회와 디트로이트연합교회의 담임목사로 사역하였습니다.

12단계 성경공부 개관

1) 1단계: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12단계 성경공부의 첫 단계로서 이 단계는 기독교 신앙의 입문과정입니다. 말하자면, 처음 기독교를 접하는 사람들이나 기독교신앙의 근본을 다시 확인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인간은 왜 신앙을 갖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그리고 세상 등의 주제들을 다루게 될 것입니다.

2) 2단계: 성경의 기본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사실들을 다루는 과정입니다. 성경 읽는 법, 성경의 중심어휘(주기도문, 메시아, 계약, 묵시, 출애굽, 종말 등), 성경의 지리, 성경의 절기 등을 다룰 것입니다.

3) 3단계: 성경의 기본(계속)

4) 4단계: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며 하나님 나라 구원의 드라마를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을 살펴보고 아울러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원역사, 족장시대, 애굽시대, 사사시대, 왕국시대, 분열시대, 중간기,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사도시대, 교회시대, 사도시대를 공부하면서 성경과 시대의 관계를 살펴볼 것입니다.

5) 5단계 : 성경의 중심이야기들, 성경의 중심주제들

성경의 구원역사에 나타난 중심주제들(창조, 죄, 구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종말 등)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과정입니다. 이 주제들의 신학적인 의미, 오늘에 주는 메시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신앙의 터전을 확고히 하는 과정입니다.

6) 6단계 : 성경의 중심이야기들, 성경의 중심주제들 (계속)

7) 7단계 : 성경과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성경을 통해 공부함으로써 바른 교회생활을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교회의 본질, 예배의 의미, 성도의 책임과 역할, 교회와 세상의 관계, 바른 교회생활 등을 다룰 것입니다.

8) 8단계 : 성경과 삶의 과제

성인들의 삶의 과제들을 성경을 통해 조명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

을 살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산상수훈을 중심으로 가정생활, 직장생활, 여가생활, 도덕생활 등에 관한 내용들을 다룰 것입니다.

9) 9단계 : 성경과 삶의 과제(계속)

10) 10단계: 성경과 사회

현대사회의 흐름을 이해하고 이에 대해 신앙인의 바른 자세를 갖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다원화되고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사회관을 갖는 것은 성도의 삶에 있어서 필수적입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자본주의, 과학과 신앙, 주체사상, 새로운 미디어와 신앙, 생명공학 등이 중심내용입니다.

11) 11단계: 성경과 사회(계속)

12) 12단계: 성경과 타종교, 이단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등의 다른 종교들과 비교함으로써 타종교에 대한 바른 자세,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다룰 것입니다.



왜 12단계 성경공부입니까?

“30년 동안의 신학교 교수 시절 동안 제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사도적이고 성경적인 신앙을 교육하는 일에 실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설교단에 서는 목사들은 교인들이 성경의 내용에 대해 거의 아무 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설교해야 합니다. 신앙의 언어, 성만찬의 의미, 기독교회의 기본 교리들은 평범한 교인들(church-goer)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최근에 유행하는 의식을 따를 뿐, 우리를 신앙으로 묶어주는 성경적 이야기를 모릅니다. 개인들은 이 교회 저 교회를 다니기에 뿌리도 없고 종교적인 역사도 없고, 어떤 반석이나 피난처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성도로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과 세상 속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참여한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Elizabeth Achtemeier

시대의 도전들

- 1) _____
- 2) _____
- 3) 이기주의
- 4) _____
- 5) 새로운 _____의 등장

12단계 성경공부의 특징

- 1) _____ 중심의 성경공부
- 2) _____를 한 눈에!
- 3) 목회적인 성경공부
- 4) _____ 성경공부
- 5) _____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경공부
- 6) _____이 있는 성경공부
- 7) 성경은 _____도 진리
- 8) 12단계 성경공부의 소망

12단계 성경공부 개관

▶ 1단계 :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가?

12단계 성경공부의 첫 단계로서 성경공부 전체의 흐름을 일러주는 8주 과정입니다. 왜 신앙을 가지며 신앙의 본질은 무엇인지를 공부할 것이며 전체의 주제가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개략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성경,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 등의 주제들을 다룹니다.

▶ 2~3 단계: 성경의 기본 I, II

성경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내용과 사실들을 다루는 과정으로서, 성경의 영감, 성경의 구성, 성경의 성경 읽는 법, 성경의 중심 어휘, 성경의 지리, 성경의 절기 등을 다룹니다.

▶ 4 단계 :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며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드라마를 발견하는 과정으로서 이를 통해서 단편적으로 알고 있는 지식들을 통합하게 됩니다.

▶ 5~6 단계 :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 II

성경의 구원 역사에 나타난 중심 이야기들(창조, 계약, 죄, 구원, 예수 그리스도, 교회, 종말 등)을 깊이 있게 다루는 과정으로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들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고 우리의 삶과 사명의 터전을 확고히 하는 과정입니다.

▶ 7 단계 : 성경과 교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보게 함으로써 바른 교회관을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 8~9 단계 : 성경과 삶의 과제 I,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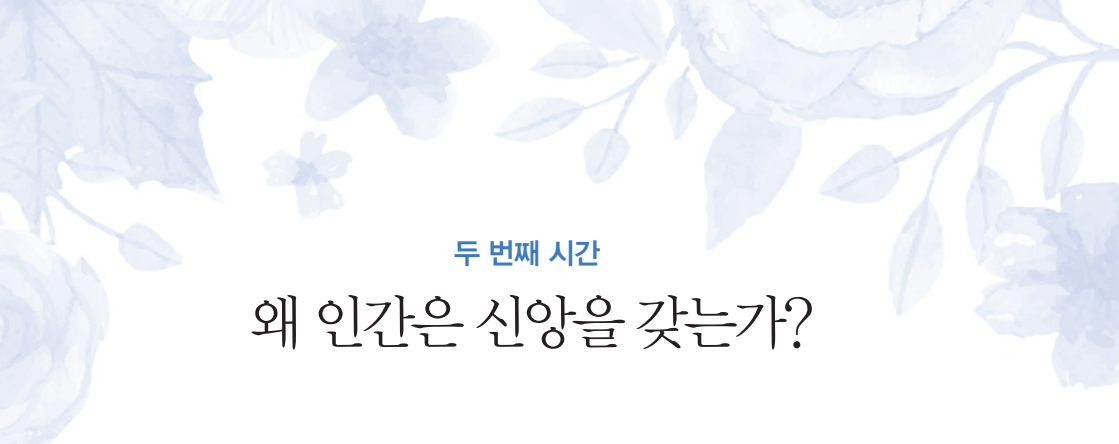
성인들의 삶의 과제들을 성경을 통해 조명하는 과정으로서 가정, 직업, 여가, 돈, 도덕, 공동체 등의 주제를 공부하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을 형성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 10~11 단계 : 성경과 사회 I, II

오늘도 역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 위해 세상의 흐름과 사상을 공부하는 과정입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특징, 자본주의, 과학과 신앙, 주체사상, 새로운 미디어와 신앙, 생명공학 등 현대사회의 이슈들에 신앙인의 관점을 갖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 12단계: 성경과 타종교, 이단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불교, 유교, 도교, 이슬람교 등 다른 종교들과 기독교를 비교함으로써 타종교에 대한 바른 자세, 성도와 교회의 사명을 다룹니다.



두 번째 시간

왜 인간은 신앙을 갖는가?

- **질문** : 왜 인간은 신앙을 갖습니까?

오늘날같이 기술이 발달한 시대에 신앙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목표** : 신앙은 바른 대상을 가져야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은 삶 정체를 망칩니다!

우리들의 이야기

우리는 지금 놀라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6세기와 17세기에 갈릴레오, 케플러 등과 같은 과학자들에 의해 시작된 근대과학의 발전은 이전 시대의 종교적 세계관을 과학적 세계관으로 송두리째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존재는 자리도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둔 세속주의의 흐름이 온 세상을 뒤엎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다시금 종교를 찾기 시작합니다. 세속주의가 힘을 잃어가고 있고 과학만이 지식을 얻는 왕도라는 생각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기술의 발달은 무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믿음도 이제는 환

상이 되었습니다.

20세기가 되면서 진보라는 신화는 수많은 야만적 사건들에 의해서 허구임이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6000만 명의 사람들이 사람에 의해 살해당했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의 수는 과거보다 더 증가했으며, 에이즈(AIDS)와 같은 질병이 도처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핵무기의 위협과 함께 빈부의 격차는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라는 위기감을 갖게 했습니다. 소유가 삶의 목표가 되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더 바빠졌고, 이제는 모두가 서두름이라는 악마의 종이 되었습니다.

데카르트와 뉴턴의 기계론적인 세계관은 이 땅을 낙원으로 만들기는커녕 인간으로 하여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도록 했고, 경제성장과 기술발전으로 무제한의 물질적인 진보를 이룰 것이라는 헛된 신념을 갖게 했으며 그러면서 남성위주의 사회구조는 우리 모두를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프리초프 카프라, 『생명의 그물(The web of Life)』, 김용적 김동광 옮김, 범양사, 1998, 21쪽.)

성경의 이야기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 존재로 지음 받았다고 선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이며 하나님의 책임을 맡은 대리자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시편 8장 4~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

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왜 종교가 중요합니까?” 라는 책에서 휴스턴 스미스(Houston Smith)는 종교의 중요성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불안함(dis-ease)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완전한 평안함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열망은 우리의 땃속에 쓰며들어 있고 영혼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문학, 시, 예술, 철학, 심리학과 종교는 이 열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부분이며 특히 근대사회는 지치지 않는 쾌락과 소유에 매달리면서 이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열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략)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와 도덕의 울타리에 갇힌 세속적인 존재로부터 벗어나려는 열망을 갖습니다. (Huston Smith, The Soul of Christianity, HarperSanFrancisco, 2005)

왜 사람은 신앙을 갖습니까? 신앙을 갖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까? 우리가 흔히 갖는 질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오랫동안 가진 사람들도 한번 즈음은 이 질문을 합니다. 특정한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은 신앙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신앙과 종교를 혼동하기에 하는 말입니다. 신앙과 종교는 다른 말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나 불교와 같은 특정한 종교를 가지지 않을 수는 있으나 신앙을 갖지 않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신앙은 인간의 근본이며 부인할 수 없는 존재의 요구입니다.

신앙의 질문들

제임스 파울러(James Fowler)라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신앙과 관계된 질문이라고 말합니다.

1. 당신의 시간과 노력은 무엇을 위해 주로 사용하며 사용되어집니까?
무엇이 당신의 최고의 시간과 에너지를 위한 것입니까?
2. 무슨 목적이나 꿈을 위해 당신의 삶을 쏟아 붓습니까?
3. 무엇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들)입니까?
4. 당신의 삶은 어디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5. 누구(개인이나 그룹)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소망을 나눕니까?
6. 무엇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소망입니까?

신앙과 인간의 한계

신앙을 갖는 이유는 인간의 한계성 때문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으며 막 태어난 아기로부터 건장한 젊은이까지도 모두가 자신의 한계를 넘어선 존재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매일 매일 병이나 자연재해 같이 인간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초월적인 존재를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기에 종교는 선택할 수 있어도 신앙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어

떤 신앙의 대상을 갖느냐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신앙의 대상을 갖되 바른 대상을 갖는 것입니다. 어떤 대상을 갖느냐에 따라 삶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신앙의 대상에는 온갖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에 대한 숭배는 고대나 현대의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거나 이상이 생기면 모든 생명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물론 동물이나 식물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힌두교의 소, 이집트의 악어,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의 뱀 등은 대표적인 신앙의 대상들입니다. 심지어 이 모든 것을 거부하고 내 힘으로 살겠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신앙의 대상입니다. 나의 경험, 나의 힘, 나의 지식...

신앙의 종류들

리처드 니버(H. Richard Niebuhr)라는 신학자는 사람이 갖는 신앙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살펴보면 신앙은 보편적이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단일신론

먼저 단일신론(Monotheism)입니다. 신앙의 대상을 하나만 선택하고 그것만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그 대상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술이 될 수도 있습니다.

2) 부족신앙

두 번째는 부족신앙(henotheism)입니다. 이는 자신이 속한 부족이나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기의 부족을 위해 헌신하는 것을 최고의 영예로 삼았습니다. 현대적으로는 독일 나치의 민족주의나 일본의 군국주의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3) 복합신앙

세 번째는 복합신앙(polytheism)입니다. 이는 가장 흔한 모습으로 여러 대상을 신으로 섬기면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신앙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천신, 땅에는 지신, 물속에는 용왕신을 섬기는 것이나 오늘날 일본 사람들이 별의 별 것을 다 신으로 섬기는 모습이 대표적입니다.

4) 유일신신앙

마지막으로 유일신신앙(Radical Monotheism)이 있습니다. 이는 기독교성경에 기초한 특이한 신앙으로서 한 대상만을 의지하는 신앙이지만 앞에서 나온 단일신앙과 달리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 신앙에 따르면 창조주 외의 모든 대상은 피조물일 뿐 아니라 우상들이며 따라서 인간이 섬길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뿐이라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물론 이 신앙에는 기독교(구교와 신교를 포함)외에 유대교와 이슬람교도 포함됩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렇게 보면 모든 사람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다만 그 대상이 다를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대상을 선택하는 것 뿐입니다. 이 질문이 중요한 이유는 어떤 대상을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모습을 띠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섬기는 사람은 하늘처럼 될 것이며 동물을 섬기는 사람은 동물처럼 될 것이며 사람을 섬기는 사람은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과학 또한 중요한 섬김의 대상입니다.

신앙과 죄

아울러 우리의 삶에는 죄라는 현실이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삶이 윤택해짐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죄가 나타납니다. 죄의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절망과 좌절을 경험하게 합니다. 신앙은 이러한 고통으로부터 위로와 소망을 갖도록 하는 근본능력입니다.

신앙의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갖기 원하는 것도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은 의미를 추구하는 피조물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끊임없이 의미를 찾습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까지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인생은 무엇인가? 죽음이란 무엇인가? 죄는 왜 생기는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뿐만 아니라 삶에 예상치 못한 일이 다가올 때나 감당하기 힘든 일이 다가올 때, 종교를 통해서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며 어려움을 이기려고 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할 때 우리는 허무함이나 절망을 경험합니다. “아무리 원인과 결과를 따져도 이유를 찾을 수 없고 이유를 찾아도 의미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세상이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사람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갑니까? 죽음 다음에는 어떤 세상이 있습니까?” 이러한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종교를 찾습니다. 종교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빅톨 프랭클이 쓴 『그래도 나는 삶이 의미있는 것이라고 믿는다』를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삶은 고통이며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만 한다” (9쪽).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수용소에 갇힌 유대인들의 이야기입니다. 처음 수용소에 들어오게 되면 입소의 충격을 겪습니다. 무서운 공포가 다가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서운 그리움입니다.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현실에 대한 혐오가 무섭게 다가오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 번째로 다가오는 현상은 무감각과 초연함입니다. 이는 생존하는 방편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때부터는 문화적인 동면상태가 되면서 문화라는 것은 그 어떤 것이든 사치가 되어 버립니다. 계속해서 꿈에 나타나는 것은 빵을 먹는 것, 담배를 피우는 것, 따뜻한 방에는 목욕하는 것과 같은 기본적인 생존의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두 가지에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는 정치이며 다른 하나는 종교입니다. “독일군이 어떻게 되었단다” “승리했단다, 패배했단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기도만은 포기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서로 나눕니다.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는지, 희생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죽음은 무엇인지.

신앙은 우리의 삶에 의미를 제공합니다. 물론 종교 가운데 현실을 떠나는 것이 주된 목적으로 삼기도 합니다. 현실을 떠나 고요한 곳으로 가든지, 먼 나

라로 가든지, 죽고 나서 이상향으로 가든지... 이를 통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현실을 떠나는 종교가 아닙니다. 도리어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을 올바르게 앎으로서 용기 있게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신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며 하나님의 일하시는 곳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도 바로 이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우리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칩니까?

어떤 신앙의 대상을 갖느냐는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신앙의 대상에 따라 삶의 목적, 방향,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1) 신앙과 사고방식

몇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기독교인의 사고방식과 과학의 사고방식이 다르며 불교인과의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과학적 사고방식은 원인과 결과를 따지며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반드시 객관성과 논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사고방식은 성경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불교인의 경우 전생이나 인연을 따지기도 합니다.

2) 신앙과 세계관

아울러 세계관이 다릅니다. 이 주제는 나중에 깊이 다루겠지만 여기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긍정적인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돌보시면 오늘도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비

록 죄가 많지만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포기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과학의 사고방식은 기계와 같은 사고방식입니다. 모든 만물들이 법칙에 따라 기계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간도 우주라는 거대한 기계의 일부분입니다. 물론 요즈음에는 이에 대해 큰 변화가 다가왔지만 오랫동안 과학은 세상을 기계로 다루었습니다. 세계관이 다르면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집니다.

3) 신앙과 언어

아울러 사용하는 어휘가 드립니다. 기독교인들이 사용하는 어휘와 불교인이 사용하는 어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경우 감사, 찬송, 은혜, 사랑과 같은 어휘들이 많이 사용되지만 불교의 경우 전생, 업보, 자비, 공덕 등의 단어들이 사용됩니다. 어휘가 다르다는 말은 생각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말이요 삶의 태도가 다르다는 뜻입니다.

참된 신앙의 대상을 선택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제 나름대로 신앙의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기독교신앙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신앙을 다시 점검하는 의미에서 다음 기준들을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창조주

생명과 만물의 창조에 대한 관심은 인간의 보편적인 관심입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창조와 우주의 기원에 대답은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터전입니다.

2) 생명사랑

우리가 섬기는 신은 생명을 사랑하는 신이 되어야 합니다. 생명은 사랑을 갈망하며 사랑의 능력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바른 신이라면 생명을 사랑하는 신이어야 하며, 생명을 사랑할 때 인간과의 바른 관계가 맺어질 것입니다.

3) 보편성

어느 한 종족이나 문화 또는 시대에 국한되는 신은 믿을 있는 신이 아닙니다. 그 신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특정한 민족에게만 해당되거나 특혜를 주게 되면 신앙이 자칫 다른 생명을 침략하거나 이용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4) 역사성

신앙은 과거만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도 생명력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만 생명력이 있든지 현재에만 있다면 온전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신앙은 역사 속에서 생명력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멀리하거나 떠나는 신앙은 생명에 소망이 되지를 못합니다.

5) 도덕성

신앙은 우리의 삶을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도록 해야 합니다. 도덕이 신앙의 중심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도덕은 신앙의 중요한 능력입니다. 신앙을 통해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사는 모습도 가져야 하며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일에도 헌신해야 합니다.

6) 구원

모든 종교의 궁극적 소망은 인간과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입니다. 죄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구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인간의 고통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 이러한 질문에 대해 일관성 있는 답을 가져야 합니다.

왜 인간은 신앙을 갖습니까?

“우리 안에는 근본적인 불안함(dis-ease)이 있습니다. 이는 마치 꺼지지 않는 불과 같아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완전한 평안함으로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이 열망은 우리의 뱃속에 스며들어있고 영혼의 영역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대한 문학, 시, 예술, 철학, 심리학과 종교는 이 열망이 무엇인지를 알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닿을 수 없는 부분이며 특히 근대 사회는 지치지 않는 쾌락과 소유에 매달리면서 이를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 열망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뛰쳐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인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이 가진 한계와 도덕의 울타리에 갇힌 세속적인 존재로부터 벗어나려는 열망을 갖습니다.” (Huston Smith)

1. 믿음과 하나님의 나라 : _____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롬 3:22)

구약의 강조 : _____에 순종 신약의 강조: _____

2. 믿음에 대한 우리의 모습

가장 많이 사용하지만 그러나? 왜?

3. 믿음에 관한 구절들

믿음이 크다 / 작다 (마6:3, 마 17:20)

믿음이 강하다 / 약하다 (롬 15:11)

믿음이 온전하다 / 온전치 못하다 (엡 4:13)

믿음이 자란다 / 자라지 않는다 (엡 4:15)

믿음이 견고하다 / 흔들리지 않는다 (롬 4:20)

믿음이 있다 / 없다 (막 4:40)

4. 믿음의 본질

1) 하나님의 _____

2) 보편적

3) _____의 역사

4) _____

5) _____

5. 믿음의 형성 : _____ 처럼 만들어짐.

1) 믿음 형성의 두 가지 요소 : _____와 _____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 4:5)

2) 다발의 수는 _____ 좋다.

3) 모든 다발은 _____ 되어야 한다.

4) _____(core belief)가 없어야 한다.

6. 믿음이 어떻게 자라느냐? (엡4:11-16)

- 1) 일평생 자람
- 2) 양과 질로 자람 (질의 성장이 어려움)
- 3) _____해야 자란다. 균형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비정상적으로 자람.
- 4) 의지-통합-자립-나눔-비움
- 5) 목표 : “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
 - a. 자기 부인 b. 생명 사랑 c.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

7. 믿음의 종류

- 1) 단일 신론(Monotheism)
신앙의 대상을 하나만 선택하고 의지하는 모습. 그 대상은 _____
- 2) 부족 신앙(Henotheism)
자신이 속한 _____에 충성하는 것. 현대적으로는? _____
- 3) 복합 신앙(Polytheism). 여러 신을 섬김
- 4) 유일신 신앙(Radical Monotheism). _____을 믿는 신앙.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8. 기독교 신앙의 특징 : 전인과 전 관계의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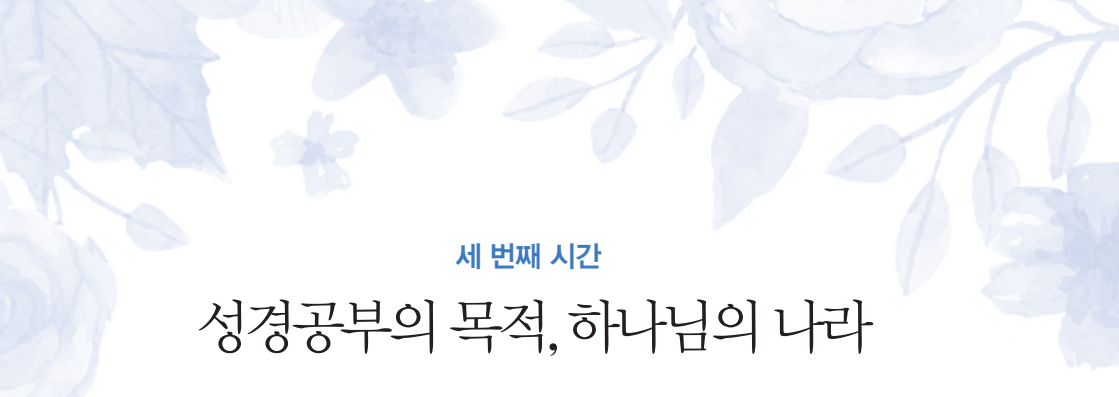
- 1) 사고 방식
- 2) 세계관
- 3) 삶의 의미
- 4) 기타

9. 신앙의 질문들

- 1) 당신의 시간과 노력은 무엇을 위해 주로 사용하며 사용되어집니까?
무엇이 당신의 최고의 시간과 에너지를 위한 것입니까?
- 2) 무슨 목적이나 꿈을 위해 당신의 삶을 쏟아 붓습니까?
- 3) 무엇이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힘(들)입니까?
- 4) 당신의 삶은 어디에 헌신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 5) 누구(개인이나 그룹)와 당신의 가장 소중한 소망을 나눕니까?
- 6) 무엇이 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소망입니까?

10. 바른 신앙의 대상을 선택하는 근거

- 1) _____
- 2) _____
- 3) _____
- 4) _____
- 5) _____
- 6) _____



세 번째 시간

성경공부의 목적, 하나님의 나라

성경공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성경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공부의 목적을 정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합니까?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먼저 다가오는 생각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입니다. 성경공부를 통해서 지식을 얻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식은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식을 갖기 전에 먼저 확인할 사실이 있습니다. 지식을 갖되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은 단지 지적 호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지식 자체의 획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는 거룩한 순종 때문입니다. 아무리 귀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목표가 잘못 세워지면 그 지식은 그 본래의 가치를 잃어버린 채 이기적인 욕심의 도구가 되거나 심지어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책입니다. 따라서 12단계 성경공부는 하

하나님의 나라를 목표로 성경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성경을 배우되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백성이 되려는 거룩한 헌신으로 공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이 질문은 12단계 성경공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략적인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은 앞으로 계속되는 12단계 성경공부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 개 관입니다.

1) 예수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달리 하나님의 통치(Reign)이라고도 부르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막 1:15)

이 선포는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거쳐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에 이르기까지의 오랜 준비기간을 거쳐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 마침내 예수님에 의해 선포됩니다. 마치 올림픽에서 대통령의 개회선포로 모든 경기가 정식으로 시작된 것과 같습니다. 개최하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준비가 마쳐졌을 때에 개회를 선포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ㄱ) 3년간의 공생애

3년간의 공생애 삶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가르치시며 이루신 일들입니다. 주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광야에서 사탄의 왕과의 영적 전쟁을 치루셨습니다(마4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현장인 산상수훈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현장입니다.

ㄴ) 주님의 가르치심

주님이 가르치신 내용의 대부분은 비유의 형태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비유들(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가라지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물 비유 등)은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들입니다.

ㄷ)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물리치시고 거짓 종교인들을 배척하신 사역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던 죄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은 마침내 이 땅에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절정(Climax)의 사건입니다.

ㄹ) 마지막 당부

공생애 마지막에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당부하셨습니다

다(마 28:18-20).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ㄱ)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무엇보다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해서 그리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오직 진리만이 있으며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

성경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며, 땅위의 생물들, 하늘의 새들, 마지막으로 동물과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아하신 그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심으로 만물은 혼돈과 공허를 벗어나 질서와 조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 받았기에 하나님만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서로 화목함으로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존재였으며,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은 아름답고 복된 존재였습니다. 자연 또한 사람에게 축

복의 터전이었으며 하나님의 은총과 사명의 도구였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전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와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함이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시19:1-6)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나라, 기쁨과 평화와 아름다움이 충만한 나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 모든 관계들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관계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관계가 되었고, 자연은 가시와 엉겅퀴를 통하여 고통을 주게 되었고 자신의 모습에 대해선 나뭇잎으로 감추는 부끄러운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땅은 기쁨과 평화와 아름다움 대신 고통과 갈등, 그리고 저주가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죄의 모습은 갈수록 커져갔고 하늘에까지 뻗어가면서 결국에는 노아 홍수라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심판 후에 노아 식구들을 통해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했지만 또 다시 바벨탑 사건(창 11장)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땅을 회복하라는 사명을 맡겨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나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12:1-3)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에 따라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복된 백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복으로 저주 받은 생명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맡게 됩니다. 이제 이 땅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 의해서 다시금 회복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지는 성경의 이야기들은 바로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 죄와 죽음의 권세가 무너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입니다. 물론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죄악이 넘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이 땅은 온전히 회복되어 하늘은 새 하늘이 되고 땅은 새 땅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전통적으로 말하는 죽고 나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 전체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져 가며,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위해 세워진 기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회복을 시작하셨듯이, 신약시대에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부어지면서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고 그들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땅 끝까지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기관입니다. 교회의 모든 사역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증거하는 사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곳이며 성도들은 죄가 가져다준 모든 차별과 억압을 물리치고 형제자매로 회복된 곳이며 함께 성찬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는 곳이며 나아가 의와 평강과 기쁨(롬14:17)의 하나님 나라 가치를 실현하는 곳입니다.

나와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은 단순히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통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맡겨주신 사명에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 애굽에서 종으로 살던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 광야 이야기, 가나안 복지 이야기, 사울로 시작된 왕국 이야기, 다윗 왕 이야기, 분열된 왕국 이야기, 바벨론 포로 이야기, 그리고 신약 이야기... 모두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는 바로 우리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족보는 예수에게 도달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

는 사람들은 이 족보에 참여하게 되며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동참하여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헌신으로 인하여 전파되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언젠가는 완성될 것입니다. 죄의 역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될 것이며 더 좋은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마치 1953년에 휴전이 되었지만 지리산에서는 전쟁이 계속되었던 것과 같습니다.

모든 생명의 소망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생명의 소망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모든 생명의 보편적 소망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를 소망하며 평화를 사랑하며 기쁨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달리 말하면 생명의 아픔은 이 땅에 바르지 못한 일과 관계가 어려운 일, 그리고 기쁨을 잃어버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신앙의 한 부분이 아닙니다. 기독교신앙 전체를 상징하는 이미지입니다. 기독교신앙의 모든 면들은 하나님 나라의 우산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만일 부분적으로 알게 되면 왜곡되거나 잘못이 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 기둥도 아니면 벽도 아니라 코끼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배도, 선교도, 교육도, 친교도, 봉사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해야 합니다.

* 성경은 _____ 를 증거하는 책

1. 왜 성경을 배우느냐?

“_____를 알고 _____이 되기 위함”

2. 성경을 대하는 바른 자세

현대인이 지식을 갖는 두 가지 동기: “_____과 _____”

1) _____:

2) _____:

3) 헬라 사람은 _____이해하기 위해

유대인은 _____하기 위해

현대인은 _____하기 위해

4) 성경의 동기: “_____”

상대방을 _____함

내 _____을 엮

서로 _____가 맺어짐

결코 상대방을 _____대상으로 대하지 않음

3.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 선포: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1) 3년간의 공생애:

2) 주님의 가르치심: 비유들

3) 왜 비유?

a. 아무도 본 사람이 없음

b. _____을 요구함

4) 주님의 사역: 병자, 귀신, 거짓 종교인들 배척...

5) 마지막 당부: “모든 족속” 으로 제자를 삼아

6)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

4.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

“성경 전체가 하나의 드라마이다!”

5.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1) 교회는 _____위해 세워짐

2)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해야 함

※ 우리 교회의 일곱 가지 핵심 가치 : _____

3) 어떤 경우도 내가 _____이 되어선 안 됨 : 하나님만이 왕

“_____와 _____과 _____이 영원히 하나님의 것”

① 성령의 도우심 :

② 죄의 역사가 무너져야 함 :

a. 생명 사랑으로 _____이 무너져야 함

b. 새로운 _____ : _____의 의미

c. 의와 평화와 기쁨 ...

6. 나와 하나님의 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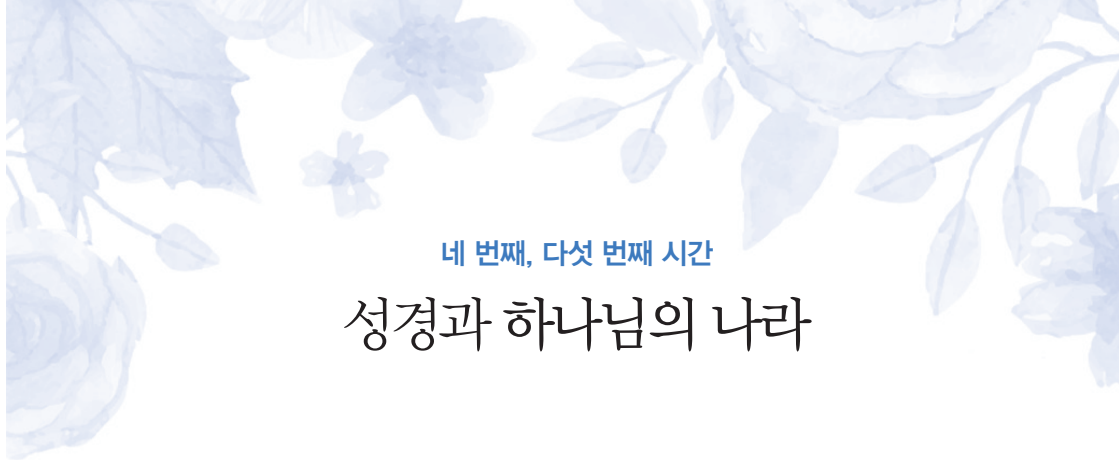
7. 모든 생명의 소망

하나님의 나라는 신앙의 일부분이 아니라 _____입니다.

모든 것을 다 팔아 보화를 산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마 13:44)



네 번째, 다섯 번째 시간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

목적: 성경 전체의 흐름과 하나님 나라와 나

성경을 바라보는 바른 관점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이 있습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성경의 해석도 달라지고 적용도 달라집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개인의 영적인 성숙을 위한 책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회변혁을 위한 책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삶의 풍성함을 위한 책으로 보기도 합니다. 심지어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안내서로 보기도 합니다. 모두가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는 하지만 온전한 관점이 아니며 성경의 본래 의도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형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주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주제로 성경을 볼 때 온전케 볼 것이며 바르게 볼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공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

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나아갈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와 나는 어떤 관계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두 시간에 걸쳐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기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를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걸어갈 여정에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드라마로서의 성경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전체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한 편의 드라마처럼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라마처럼 시작이 있고 갈등이 있고 전개가 있으며 절정이 있고 마지막 종결이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은 하나님의 고의적으로 드라마처럼 만들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전체 흐름이 마치 드라마처럼 전개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구약학자 Bernhard Anderson은 *Unfolding Drama of the Bible*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를 증명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Scripture as Drama*라는 책도 출판되었습니다.

드라마란?

먼저 우리는 무엇이 드라마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드라마는 무엇입니까? 드라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모든 드라마에는 분명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중심으로 전체의 이야기들이 엮어져 있습니다. 사랑이 주제일 수도 있고, 권선징악이나 애국심이 주제일 수도 있고, 전쟁이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 주제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체 흐름을 이끌어가면서 드라마를 완성시켜 갑니다.

다음으로 드라마는 주제를 중심으로 두 세력이 갈등합니다. 대개는 선한 세력과 악한 세력 간의 갈등입니다. 물론 여러 힘들이 함께 참여하지만 그들은

모두 조연들입니다. 만일 드라마에 둘 이상의 세력이 등장하면 보는 사람은 굉장한 혼란을 겪습니다.

당연히 드라마는 줄거리(plot)가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갈등이 있으며 전개가 있고 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결이 있습니다. 전체 흐름을 알아야 하나의 이야기로 우리 속에 자리하게 됩니다.

아울러 드라마는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깊이 참여케 하고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이게 합니다.

당연히 드라마는 처음부터 보아야 합니다. 중간부터 보게 되면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뿐 아니라 드라마를 잘못 보게 됩니다.

이제 저와 함께 성경 전체를 하나의 드라마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성경에 대해 깊은 지식이 없는 분들도 염려하지 마시고 다만 전체 흐름만 파악하신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 : 하나님의 나라

성경의 주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나라(창세기 1장과 2장)는 심히 좋은 나라였습니다. 만물이 각자의 고유한 정체와 역할을 가지면서 서로 의지하고 존경함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 받아 하나님을 예배함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을 돌보고 가꾸는 충성된 청지기였고 하나님과 사람은 아무런 두려움도 없이 동산에서 동행하는 관계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아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처럼 서로 의지하고 존경하고 하나되는 살과 피의 공동체였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있어서는 인간은 흙으로부터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일체의 공동체였고 마지막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별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는” 건강하고 진실한 존재였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살롬이라고 말합니다. 이는 갈등이나 고통이 없는 소극적 상태가 아니라 생명력이 넘치고 기쁨과 아름다움이 넘치는 적극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느 곳에서도 죽음의 자리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얼마가지 않아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난 반역의 사건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창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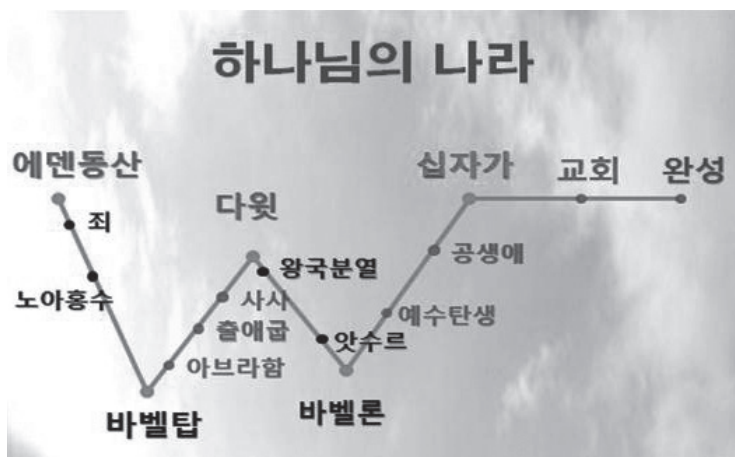
이제부터 성경의 드라마는 죄가 확장되는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갈등의 역사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을 거쳐 아브라함의 부르심, 요셉의 애굽으로 팔려감, 야곱의 식구들의 애굽 이주, 400년간의 애굽 생활, 모세의 태어남과 부르심,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의 고난과 훈련,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울로 시작되는 왕정, 다윗에서의 전성기, 솔로몬 이후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대립, 우상숭배로 인한 사회의 부패, 선지자들의 외침, 바벨론 포로와 귀환으로 구약의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말라기 이후 약 400년간의 막간(intercession)을 거친 뒤 마침내 이 땅에는 약속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면서(막1:15, 이르시되 때가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

시더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치심,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시작됨의 증거였습니다. 이 부분이 전체 역사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창세기에서 시작된 죄의 권세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마침내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인해 성취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완성의 사명을 맡겨주셨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땅 끝까지 나아가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교회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바라보는 종말공동체입니다.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며 하늘과 땅은 새롭게 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될 이야기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그림으로 그려 볼 수 있습니다.



1막 :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

이제 1막을 시작하겠습니다. 1막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막이 열리면서 아름다운 음악이 들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평화롭고 자연이 기뻐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수면에 임하면서 온 세상을 덮었던 혼돈과 무질서가 물러나고, 대신 질서와 아름다움 그리고 충만함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천지만물이 만들어지고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셨으며 모든 관계가 아름다운 살롬의 나라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로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의 일부인 형상을 나누어주고 사람은 그 형상을 받아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대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는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의 관계로서 슬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는 관계이며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상호의존과 돌봄의 관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은 자신과의 관계에 있어서 별거벗어도 부끄럽지 않는 관계로서 자신에 대해 떳떳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입니다. 갈등이나 대립도 없으며 거짓도, 악함도 없는 세상입니다.

“심히 좋은 세상이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모습은 얼마 있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면서 2막으로 넘어갑니다.

2막 : 죄와 하나님의 나라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드라마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새로운 막이 시작되었다는 징조가 나타납니다. 아름다움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사람들의 웃음이 사라지고 질서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생겨납니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니냐?” (창3:1 후반) 뱀으로 상징되는 사탄이 등장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도록 하는 반역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침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하나님처럼 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과 악은 마땅히 하나님이 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정하려는 창조주의 모습을 가지려는 죄악을 뜻합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의 권한에 도전하는 모습입니다.

선과 악의 결정이 사람에게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당연히 만물은 다시 혼란과 공허에 빠지게 되며 죽음과 고통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선이고 내가 원치 않는 것이 악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가 다 자기 소견에 따라 선과 악을 정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 선이며 내가 원치 않는 것은 어떤 것이든 악입니다. 이로 인해 죄는 온 우주에 가득하게 되고 결국에는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식구들을 구원하심으로 세상에 구원의 소망을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는 오히려 더 담대해지면서 이번에는 하

나님의 자리에 까지 올라가려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집니다(창13장). 여기서 하나님은 이들의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써 인류를 흠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2막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할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노아 홍수의 심판까지 받은 인간에게서 더 이상 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며 세상은 버려질 것이라는 절망감만 남아있습니다.

3막: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버리지 않으셨으며 아브라함을 통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이것이 3막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함으로 인간의 어떤 선함이나 공로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고백하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만이 구원의 길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구원역사는 이삭과 야곱을 거쳐 요셉으로 이어지며 요셉 때에 와서는 애굽으로 건너감으로써 더 큰 구원의 사명을 준비하게 됩니다. 모세의 등장으로 이들은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정착했으며, 여호수아와 함께 시작된 사사기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나안 역사를 시작하지만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가서는 마치 창세기 3장의 죄악의 모습을 가지면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함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위기를 맞습니다. 하지만 이 때 룯이 등장함으

로서 믿음의 구원역사는 단절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롯은 이방여인입니다. 전혀 예상 못한 인물입니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이라!” 이방 여인의 신앙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이방 땅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전기를 맞습니다.

이후 나라가 만들어지고 손자였던 다윗 시대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때보다 회복된 모습을 갖습니다. 왕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라는 번창하지만 이 또한 얼마가지 못하고 맙니다. 나라가 분열되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간의 죄악 된 갈등의 역사는 결국 바벨론 포로라는 가장 깊은 고통의 골짜기에 빠지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등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면서 이들의 죄를 지적하고 동시에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가 등장할 것을 예언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 메시아는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왕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세우고(왕)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며(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을 죄로부터 새롭게 할 것입니다(제사장). 여기까지가 3막입니다.

막간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3막을 지나면서 잠시 막간(intermission)을 갖습니다. 이 시기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로서 학자들은 이 시대를 중간기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 동안 바벨론은 바사(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고 헬라가 등장하고 다시 로마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커져갔으며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그리고 세례요한이 속했던 예세네파 같은 무리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4막 :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

4막을 맞으면서 마침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4막의 시작은 메시아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1:1). 신약성경은 메시아의 족보를 맨 첫머리에 둠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선포합니다. 신약은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죄로부터 세상을 구원할 사명을 감당하실 분이란 고백입니다.

구약시대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절망에 빠졌던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보여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바벨탑으로 인해 절망에 빠졌던 인류를 구하시기 위해 썸의 족보를 먼저 드러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족보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땅에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4막의 시작입니다.

예수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때가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이는 마치 올림픽경기의 개막선언과도 같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룹니다.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은 하나님 나라의 메시아와 죄의 나라 왕과의 싸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일어났던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 주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빵과 같은 경제적인 권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권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로써 예수는 완전한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

예수의 말씀은 곧 창조주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며, 모든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는 구약의 선지자가 아니라 직접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타난 “나는 ...이다”라는 표현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표현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 표현은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실 때 사용하신 표현

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I am that I am).”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유대인들은 온갖 거짓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의 한 마디에 모든 것이 종결됩니다. “내가 그니라(I am he)!”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네가 찬송 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막 14: 60-63)

마지막으로 주님은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생명들을 구원하시는 용서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간음한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을 용서하시면서 새 삶을 허락하셨고 마지막에는 한 강도를 용서하시면서 누구든지 예수께 나아올 때 용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자신이 친히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시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었고 십자가상에서는 가장 먼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써 대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창세기 3장에서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역사 전체의 절정입니다. 죄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마침내 회복된 사건입니다. 이제 이 땅이 새로워질 것이며 하늘이 새로워질 것이며 생명이 새로워

질 것입니다. 낮은 골짜기가 높아지고 높은 골짜기가 낮아질 것이며 굽은 골짜기가 펴질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비록 고통스러운 사건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걸어야 할 사역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그 자체로만 볼 때 두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와 하나님의 나라

이 과정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바로 열두 제자의 사역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가장 힘쓴 사역이 바로 열두 제자를 양육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 일에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셨으며 어떤 사역보다 이 사역에 힘쓰셨던 사역이었습니다.

제자이면서 사도!

세례를 받으시자마자 가장 먼저 열두 제자를 부르신 것도 이 사역은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는 사역이고 온 힘을 다할 사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후계자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사역은 단절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순히 주님의 사역의 보조자들이 아닙니다. 아니면 자신을 위해 주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배운 학생들만도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이들을 “사도”라고 부릅니다(2절). 주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이 나라를 계속할 사명자라는 뜻입니다. 열두 제자들은 본래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어부들도 있고 세리도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인지 모릅니다. 열두 제자들은 예수
를 만나면서 인생을 바쳤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생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좋
은 선생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평생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좋은 선생 한 사
람만 만나도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나이가 들어도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좋
은 선생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분을 통해 삶의 자세를 배우고 고난을 이길
지혜를 배우는 것입니다.

이들은 3년간 주님과 함께 했으며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목격했고 그리고 주님의 가
르침을 따랐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하나님에 누구신가를 알았으며 내가 누
구인가를 알았습니다. 세상이 무엇인가를 알았으며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았
으며 예수 선생을 만남으로 자기의 삶 전체를 헌신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몸부림
쳤습니다. “너는 내 제자다.” 그 한 마디 듣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하지
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자 안타깝게도 “제자”가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제자가 필요 없었고 예수 대신 거대한 종교와 제도가 그 자리를 차지했
기 때문입니다.

5막: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이제 5막을 다룰 차례가 되었습니다. 5막은 교회를 다루는 막입니다. 이제
거룩한 구원 역사의 절정이 지나갔으며 남은 것은 마지막 종결입니다. 이제
죄의 역사는 무너졌으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역사가 본격화되기 시작합니

다. 그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한정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그 테두리를 넘어서서 땅 끝까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오심을 기다리라고 당부하셨고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성령의 역사가 이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각종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이 땅에 새로운 믿음공동체가 탄생된 것입니다. 이제 이 공동체는 구약의 공동체와 다른 공동체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지리적, 종족의 테두리에 갇힌 공동체가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품는 공동체이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시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은 이제는 특권이 아니라 사명이며 복음전파는 공동체의 근본입니다. 무엇보다 이 공동체는 성령공동체입니다. 이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자 모두가 놀라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이냐”

왜 이러한 반응을 보였습니까?

지금까지 성령의 역사는 주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 즉, 메시아라고 불리는 사람들에게 주로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왕도 아니요 제사장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어찌된 일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이 때 베드로는 이 일의 의미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남종과 여종에서 부어 주리니...” (골2:28) 이미 성경에서 예언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골 2:28-30)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초대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크리스천”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메시아였다면 신약에서는 모든 예수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메시아들이란 뜻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벧전 2: 9)

이 말씀은 성직자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들 모두에게 성령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1) 무엇보다 교회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보여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부름 받은 누룩과 같은 공동체이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관심은 마땅히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교회는 성직자와 평신도라는 구분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부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소명은 일부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받았습니다.

2)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둘로 나누어선 안 됩니다. 더 이상 성스러운 영역과 세상적인 영역으로 나누어서도 안 됩니다. 모든 영역들이 하나님의 영역이며 거룩한 영역들입니다. 교회는 자신만을 거룩하게 여기며 세상을 차별하는 공동체가 되어선 안 되며, 자신만의 성장을 자랑으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자신만의 성장을 부끄럽게 여겨야 하며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것이 자랑과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3) 무엇보다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습니다.

4) 나아가 교회가 가질 근본가치는 보편적인 가치이어야 합니다. 충성, 봉사, 헌신과 같은 교회 안에서만 통용되는 가치가 아니라 세상과 함께 공유하는 가치를 가져야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

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교회가 가질 가치입니다. 이는 모든 생명이 보편적으로 원하는 가치입니다. 모든 생명은 의롭게 살기 원하고 평화롭게 살기 원하고 기쁨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이 고통하는 것도 바로 이 가치들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초대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 교회요 땅 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파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을 환영하고 축복한 공동체였습니다.

6막 : 하나님의 나라 완성

이제 마지막 6막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이는 기독교의 종말을 말합니다. 언젠가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그 때를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으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죄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소식이 땅 끝까지 전해지면서 완성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점에 있어서 우리는 바른 종말론을 가져야 합니다. 흔히 종말론이라는 말을 하면 대개는 부정적으로 대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종말을 부정적으로 보면서 두려워하기까지 합니다. “망한다, 끝난다, 무너진다, 사라진다” 등입니다.

기독교의 종말은 구원역사의 완성과 성취입니다. 영어에서는 consummation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구

원 역사를 완성하실 것이며, 하늘과 땅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물론 그 이전에 마지막까지 남은 죄의 역사를 친히 정리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이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처음과 마지막이 있는 역사관이며 하나님께서 주관하심을 고백하는 역사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의 역사관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수많은 굴곡을 겪었습니다. 바벨탑의 어려움도, 바벨론의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역사는 결코 포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은 가장 분명한 증거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구원역사가 실패했다고 믿었고 더 이상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지만 주님은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이미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아직 땅 끝까지 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 때까지는 이 땅에 여전히 죄악과 죽음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6. 25전쟁이 끝나고 판문점에서는 휴전 협정이 맺어졌을 때, 아직까지 지리산에서는 전투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메시아가 오면 당장 그 다음 날로 이 땅에 죄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다음 날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가 메

시아라면 아직까지 죄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의 오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고 예수에게 세례를 주면서 분명히 예수가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훗날 감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습니까?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오면 당장 그 다음 날로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할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자신이 아직까지 옥에 갇혀있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걷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마 11:4-5)

만일 메시아가 와서 바로 그 다음 날 죄의 권세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민족이 다 망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이방인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생명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오지 않음을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나아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평화 가운데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생명도 차별받거나 소외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도 헬라인도, 주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장애인도, 모두가 나아와야 합니다.

이러한 종말적 신앙은 먼 훗날 일어날 신앙만은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하나님이 나라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될 때, 오늘의 삶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에도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을 잃지 않을 것이며 인내로서 어려움을 이길 것입니다.

I. 역사와 기독교 신앙

“유대 민족의 가장 큰 특징은 역사에 대한 이해이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또한 _____의 사건을 기억하며 그 사건을 이스라엘 역사 드라마의 완성(fulfillment)으로 바라본다.” (Bernhard Anderson, Understanding the Old Testament)

1) 성경 역사의 요약 (창세기 1~11장은 별도)

① 아브라함(기원전 2세기)이 가나안으로 이주(먼저 세겜에서 정착함).

② 이들이 _____으로 이주함.

모세의 인도로 (1300 B.C. 경) 애굽을 벗어나고 종교 공동체를 만들.

③ 여호수아의 지도력으로 가나안 정복.

④ _____이 죽고 나라가 둘로 갈라짐.

⑤ 북왕국의 멸망(721 B.C.), 남 왕국멸망(587 B.C.), 바벨론 포로

⑥ 바사 시대에 귀환함. _____와 _____가 지도자.

⑦ 바사의 지배 후에(200년 가까이) _____의 지배를 받음(알렉산더 대왕) 헬레니즘의 영향.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시리아의 셀루키드(Selucid)의 통치를 받음. 마카비의 지도력으로 유대인의 폭동이 일어남 (168 B.C.). 로마 통치 때까지 독립.

※ 결론: 역사는 단순히 전쟁이나 인구 이동이나 문화의 흥망성쇠가 아니라 역사 속에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_____의 활동이 담겨져 있음.

구약은 하나님의 하신 일의 기록(하나님의 과거, 현재, 미래에 하실 일). 모든 인간 역사는 자신의 계시(disclosure)의 장(theatre).

이 가운데 결정적 사건은 _____.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의 사명과 운명을 이 사건에 따라 해석함. 따라서 유월절이 우리의 성찬처럼 중요함.

2) 성경의 역사 이해

- ① 현실의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음.
- ② 현실을 고해로 보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음.
- ③ 역사 전체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심.
※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 롬 8:29-30
- ④ 전체 역사 가운데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 ⑤ 교회(성도)는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 오늘을 바라보며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

2. 성경과 하나님의 나라

1) 드라마로서의 성경

- ① 주제: _____
- ② 두 세력 간의 갈등: 하나님과 _____
- ③ 줄거리(plot) ④ 관중의 참여 ⑤ 처음을 알아야 함



1막 창조와 하나님의 나라: “심히 좋은 세상!”

- 1)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 _____
- 2) 인간과 인간의 관계 : _____
- 3) 인간과 자연의 관계 : _____
- 4) 인간과 자신의 관계 : _____

2막 죄와 하나님의 나라: 역모가 일어남.

“하나님처럼 되어!”

3막 아브라함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나라(창12장)

막간 :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기

바벨론은 바사(페르시아)에게 멸망하게 되고 헬라가 등장하고 다시 로마가 등장
바리새, 사두개, 에세네 등과 같은 그룹들이 생김

4막 메시아와 하나님의 나라

마침내 구약이 약속한 메시아가 등장. 완전한 _____

- 1) 4막의 시작 :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1:1)
- 2)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 “때가 찼고...” (막1:4-15)
- 3)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 자신이 친히 _____이 되시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었고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기도하심으로 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심.

- 4) 십자가 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으로 잃어버렸던 영생을 다시 회복하심.
- 5) 제자와 하나님의 나라

5막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_____를 세우심.

- 1) 부활의 공동체
- 2) 복음 전파의 공동체
- 3) 성령 공동체
- 4) 크리스천 : 작은 메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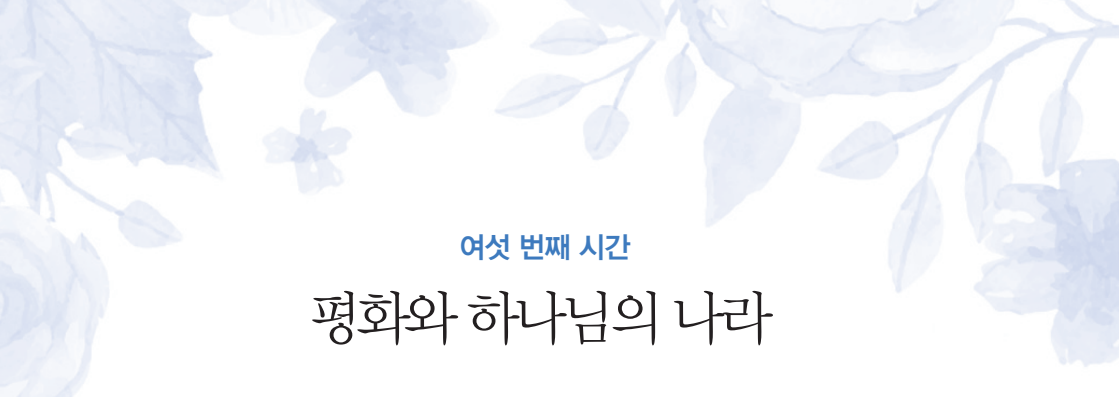
교회의 사명

- 1) 교회는 _____의 증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_____ 선포하며 보여주어야 함.
- 2)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을 둘로 나누어선 안 됨.
- 3) _____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 4) 교회가 가질 근본 가치는 _____인 가치.

6막 기독교의 종말!

기독교의 종말은 구원 역사의 _____과 _____.

“이미 그러나 아직!” (Already not yet!)



여섯 번째 시간

평화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소망

오늘날은 어느 때보다 평화에 대한 소망이 큰 시대입니다. 2000년이 되면서 온 인류는 이 땅에 평화를 소망했습니다. 새로운 천년은 지난 천년과 달리 전쟁과 갈등, 대립과 정복이 없는 평화의 세상이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새천년이 시작되자 말자 곳곳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2001년에는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파괴되는 사태와 그 후유증은 평화에 대한 소망을 도리어 절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인한 축복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죄악된 정복 욕구를 등에 업으면서 이제 평화는 전쟁과 같은 군사적인 영역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생존의 문제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의 개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화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

경에 나오는 많은 중심 개념들, 예를 들어 구원, 정의, 사랑과 같은 개념들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성경의 평화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평화(히브리말로 는 shalom, 헬라말로는 eirene)는 성경의 중심적인 개념입니다. 샬롬이라는 명사는 구약에 약 235번 나타나며 그 뜻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상적인 삶에서도 나타나며 정치적인 영역에서도, 예배나 율법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에 모든 것이 보시기에 좋으셨습니다. 이것은 이 땅이 샬롬의 세상이었다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들이 평화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은 사랑과 예배의 관계로 에덴동산을 함께 거닐었고, 사람은 살 중의 살 뼈 중의 뼈처럼 아픔과 기쁨을 함께 나누었으며, 자연은 인간을 축복하며 인간은 자연을 책임 있게 돌보는 관계였으며 자신과 자신의 관계는 별거벗었으나 부끄럼이 없는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관계였습니다. 이 땅에는 대립과 갈등이 없었으며 서로 해함도 없었고, 거짓이나 위선, 탐욕과 정복이 없었습니다. 흔히 생각하는 갈등이나 고통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를 넘어서 적극적인 상태였습니다.

샬롬의 의미

샬롬의 근본 의미는 온전함(wholeness), 조화(harmony), 건강함(soundness), 안전(safety) 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샬롬의 약 10퍼센트는 인사에서 나타나며 두 사람이 서로 만날 때 “평화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Shalom be with you)” 라고 말하며 헤어질 때도 “Go in Shalom” 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은 사람에게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도시의 안전이나 조화를 가리킬 때도 사용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의 평화를 기도했습니다(렘15:5).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나 갈등, 또는 대립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성경적 평화는 종교적인 차원이나 개인적인 차원의 평안을 넘어서며 사회적인 평화, 그리고 온 우주의 평화를 말합니다. 구약의 경우 샬롬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만이 평화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시편 85편에서는 율법과 의에 대한 충성만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고백합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시85:10) ...

평화와 왕

평화에 관한 책임은 특별히 왕에게 주어졌습니다. 왕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지위와 능력으로 평화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해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시 29:11)

평화와 메시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기 위함이셨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구약의 소망을 자신의 사역과 삶,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간의 평화,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만물간의 평화도 이루셨습니다. 성경에서 메시아를 목자로 비유하는 것도 바로 평화 때문입니다. 목자로서의 왕은 결코 세상적인 물리적인 힘의 왕이 아니

라 백성들과 함께 하며 돌봄과 사랑으로서의 왕입니다.

평화는 훗날에 오실 메시아의 핵심 사역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를 평화의 왕으로 부르면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사9:7). 특기할 사실은 미래의 평화는 사람만의 평화가 아니라 동물도 함께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사11: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떼어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사11:6-9)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9-10절에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핵심을 화평케 하는 자라고 부르셨으며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주님은 평화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이 땅에 언제나 존재했던 친구와 원수의 구분까지 무너뜨리며 원수도 사랑하는 평화를 요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화의 노력은 결코 아무 저항이나 도

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사탄으로부터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마태복음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은 물리적인 힘을 말함이 아니라 영적인 힘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방문하는 집마다 평화를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눅 10:5). 평화의 선포는 단지 인사정도이거나 어떤 마술적인 힘을 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집에 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평화를 이루셨고 그리고 이 땅에 평화를 심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고후5:19-20)

주님께서 가이사 아구스도가 통치하실 때에 이 땅에 오신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 때는 이 땅에 로마의 평화(Pax Romans)가 시작된 때입니다. 인간과 무력에 의한 거짓 평화가 이 땅을 다스리려 할 때에 주님은 참된 평화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참된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의 평화는 영적인 면이 근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죄를 해결하심으

로 이 땅에 평화를 회복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참된 평화의 상징입니다. 이상과 같이 성경적 평화를 간단하게 말씀 드렸지만 성경에 기초한 평화는 세상적인 평화와 다릅니다.

거짓 평화

먼저 성경적 평화는 단순히 폭력이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는 엄청난 무력을 통해서 이 땅에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이루었고 이것이 참된 평화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평화는 상대방의 희생과 억압을 통해서 이룬 평화였기에 참된 평화가 아닙니다. 즉, 불의함이 있는 평화란 말입니다. 이는 마치 폭력적 사태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폭력적 사태가 없고 대립이 없다 할지라도 그곳에 무력이 사용되고 억압이 사용되었다면 이는 거짓 평화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북한의 모습은 가장 평화로운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은 폭력적 사태가 없는 것을 평화라고 말하면서 지금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평화라고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더 많은 무기를 가지려고 합니다. 이는 바른 평화가 아닙니다. 무기를 통해서 상대방을 억누르고 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폭력이 없는 것만이 아니라 불의가 없어야 합니다. 성경의 평화는 의로운 평화입니다.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진정한 평화를 깨달음으로서 거짓된 평화를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켜서 “화평케 하는 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들이라는 뜻

입니다. 단지 불화가 없는 상태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평화의 길

십자가는 평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길이며 성도들이 선택할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고통을 대신 담당하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장벽, 인간과 인간의 장벽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는 비폭력의 길이며 용서의 길이며 사랑의 길입니다. 주님께서는 폭력을 금하시며 보복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보복은 이 땅에 더 큰 악을 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악에게 지라는 말은 아닙니다. 악에게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공동체

신약은 우리들로 하여금 모든 노력을 기울여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롬14:19). 이 평화의 공동체만이 하나님과의 평화도, 이웃과의 평화도, 자연과의 평화도, 그리고 자신과의 평화도 소유하고 있습니다. 구약학자 브루거만은 “살롬은 한 공동체가 가진 성경의 비전의 중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십니다. 교회만이 참된 평화를 알고 이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여러 가지 이유로 말미암아 자체적으로나 교회적으로 갈등하고 대립하는 것은 스스로 평화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분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예전에 노예였던 부모의 자식과 그 노예의 주인이었던 부모의 자식들이 형제처럼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언젠가는 불의와 억압의 열기에 신음하던 저 황폐한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평등의 오아시스가 될 것이라는 꿈입니다. 나의 자녀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1.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 : Shalom!

2. 우리와의 관계

남북 간, 계층간, 지역간의 갈등.

3. 우리의 모습

- 1) 우리는 그저 기도하기만 하면 된다?
- 2) 회피, 대결, 복수 등으로 해결함.

4. 성경의 답: 이 땅의 평화는 _____들의 책임.

5. Ken Sande의 네 가지 바른 방법

- 1) _____을 영화롭게 하라.
- 2) 네 _____속에서 들보를 빼라.
- 3) 온유한 _____으로 바로 잡으라.
- 4) 가서 _____하라.

6. 하나님의 나라와 평화 “심히 좋았더라!”

- 1) 모든 _____의 평화
 - a. 하나님과 인간: _____대로 지은 인간.
 - b. 사람과 사람: _____은 사랑하고 _____은 이용하라!
 - c. 사람과 자연: _____과 _____
 - d. 사람과 자신: 나 자신에 대한 _____, _____, _____
- 2) 샬롬의 의미: _____, _____, _____, _____
- 3)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_____됨.

하나님도, 인간도, 자연도, 나 자신도.

* 칼 융의 성격 유형

* 과학의 피비우스 띠

7. 평화(Shalom)란?

잘못된 평화들

- 1) _____이 없는 상태?
- 2) _____적인 평화
- 3) _____인 면만의 평화

- 4) _____으로 이루어진 평화
언어의 무력도!(상하 언어)
- 5) _____ 평화?
- 6) _____만의 평화가 아님.
- 7)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진 평화가 아님.

8. 왜 이 땅에 평화가 없느냐?

_____의 역사이며 거짓된 말씀으로 인한 “_____의 파괴”가 주된 역사.

- 1)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창3:5) :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는 교만.
- 2) 상대방을 너가 아닌 “_____”으로 보는 것: 마틴 부버(M. Buber의
나와 너) 평화는 내 안(within)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의 경계
(boundary)에 있는 것.
- 3) 이기주의: 나 중심
- 4) _____ 사상: 근대 과학
주관과 객관, 논리와 감정, 인성과 신성의 분리와 대립.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1. 이 땅에 오신 목적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

* 아우구스도가 로마의 평화(Pax Romana)를 선포한 때.

로마의 평화는 힘에 의한 평화:

주된 목적은 _____ 이 없는 것.

반항하면? _____의 형틀

2. 산상수훈의 가르치심

1) _____ 평화: 화평케 하는 자.

_____으로 악을 이겨야 함.

오른 뺨 : 왼 뺨(6:39)

속옷 : 겹옷

2) _____ 회복되는 평화: 억눌린 자도, 억누르는 자도!

3) _____이나 _____은 안 됨(눈은 눈 이는 이)

4) 모든 생명과 만물은 _____이 사랑하심.

해를 선인과 악인에게 비추심(마6:45).

3. 버려진 사람들을 찾아가심

1)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 두 족속은 원수지간(특히 예수님 당시는 심함).

2) _____공동체로 초대하심: 성만찬의 원형

* 유대인: 이방인은 어떤 경우도 식탁에 함께 하지 않음.

3) 모든 종류의 차별을 무너뜨리심.

주인과 종, 유대인과 헬라인, 남과 여, 백인과 흑인...

4) _____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함.

성령의 주된 역사는 다름을 존중하면서 하나 되게 하는 역사

4. 십자가 지심: 평화의 길

1) 자신의 죄를 담당하심.

2)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심.

5. 교회의 사명

“_____은 한 공동체가 가진 성경 비전의 중심이다” (브루저만)

1) 평화를 만드는 공동체: Peacemaker!

*교인 각자가 평화의 사명자들.

2) _____의 공동체:

3) _____나 _____보다 “평화”가 중요.



일곱 번째 시간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들은 성령에 약합니까?

성도들의 가장 간절한 소망 가운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충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엡5:18).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

오늘 이 시간에는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배우려고 합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 공부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이 이루시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의 역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적인 노력이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성도들은 성령의 도구가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성령과 죄의 역사

아울러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알아야 하는 것은 죄의 역사 때문입니다. 죄는 영적인 실체이기에 결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엡6:12).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의 가장 간절한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살지 못하기에 안타깝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세상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과학의 논리와 성령의 역사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인 나태함이나 세상일에 바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과학의 논리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학교를 통해서 “과학의 논리”를 배웠고 그 논리가 맞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벗어나면 믿을 수 없다고 배웠습니다. “모든 것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객관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믿을 수 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에는 그런 논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온통 주관적이고 감정적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느껴집니다. “내가 꿈에 계시를 받았어. 나는 환상을 봤어.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이러한 말은 성도들 사이에는 가능하지만 세상에서는 조롱당할 말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성령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증거

먼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왜 성령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성령의 필요를 알아야 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로마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주제를 말한 뒤에 가장 먼저 인간의 죄인 됨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롬3:10-12).

의인은 없나니...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죄인입니다. 이방인의 경우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찢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찢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유대인의 경우,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롬2:23).

그러면 바울은 무슨 근거로 이방인이 죄인이라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놀랍게도 “알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 이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도, 유대인도 모두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이 변명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유대인들처럼 선

택도 없었고, 율법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답변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롬1:20).

도리어 공격합니다. “왜 모른다 하느냐? 알지 않느냐?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롬1:21-23).

유대인들도 죄인입니다. 이유는 율법을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행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알고 자랑하고 그리고 가르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행치 않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23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말라 선포하는 네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

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러한 설명과 진단은 바울 자신에게도 나타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서 우리는 바울의 유명한 고백을 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지금 바울의 삶이 풍랑에 파산한 배같이 되었고, 삶은 죽음의 삶입니다. 아무런 소망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이 또한 알면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7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얼마나 율법에 정통합니까? 얼마나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고, 행하기를 몸부림쳤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원하고 몸부림치는 선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합니다. 왜 원하는데, 왜 아는 데, 왜 몸부림치는데, 행치 못합니까? 바울에게 지식이 없습니까? 소원이 없습니까? 의지가 없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바울 속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신앙생활은 결코 인간의 지식이나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내가 원해도, 아무리 의지가 강해도 죄를 이기지 못하는한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네 차원: 자아, 환경, 공허, 거룩

사람에게는 네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나라는 차원, 환경이라는 차원, 공허의 차원, 마지막으로 거룩함의 차원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가 사람의 존재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차원입니다. “내(self)”가 있습니다. 내 몸이 있고, 내 정신이 있고, 내 영혼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의 모든 노력과 수고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찾고 나를 세우고 나를 존귀하게 만들고 나를 건강하게 하고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모두가 존재의 일차원을 위한 노력들입니다.

다음으로 환경의 차원입니다. 나는 나 혼자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환경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물리적 환경도 있어야 합니다. 부모나 친구들이 있어야 하고 집과 같은 살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합니다. 좋은 친구, 좋은 직장, 좋은 집....

하지만 사람에게는 이를 넘어서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바로 공허의 차원입니다. 이는 다른 피조물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인간만이 가진 차원입니다. 외로움, 허무함, 염려, 죽음의 두려움, 무의미... 이 고통은 존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적인 고통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임에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죄의 차원이라 말하고, 심리학에서는 공허(void)의 차원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가 원하는 것들도 아니며 피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닙니다. 다 원치 않고, 다 싫

어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인간에게는 이 차원이 있기에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고통을 겪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에게는 환경 이상의 무언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빅톨 프랭클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 A Man's Search for Meaning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이 책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모릅니다. 이 분은 독일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다가 풀려난 분입니다. 정신과의사요 신학자입니다. 이 분이 수용소 안에서 살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죽음의 환경에서도 살아가더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의학 지식으로나 상식으로도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철칙 중에 하나가 반드시 수염은 깎아야 합니다. 병을 깨서라도 수염을 깎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염이 터 부룩하면 병자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하는 데서 제외시켜 버립니다. 이들이 가장 많이 죽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마스 다음날부터입니다. 수용소에 살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올해 연말에는 집으로 가서 식구들을 만나는 소망입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어도 가지 못하면 그 다음 날로 급속히 힘을 잃으면서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죽음의 환경을 이겨나가느냐? 여기서 프랭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삶의 의미가 있는 사람들은 살더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져도 무의미라든가 허무가 다가오면 사람은 죽음을

경험합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도박이나 향락에 치중하는 것은 바로 이 때 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의 노력이나 의지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해결할 수 있었다면 죽음의 두려움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없어졌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는데도 여전히 죽음의 두려움은 남아있고, 외로움도 남아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원이 남아 있습니다. 거룩함의 차원입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거룩함의 소망이 있습니다. 3차원의 문제를 넘어서서 사람답게 살고 싶고, 존귀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은 소망입니다. 이것이 거룩의 차원입니다.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8장에서는 전혀 새로운 존재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3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

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7장에서 죽음과 절망으로 절규했던 바울이 갑자기 180도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서 어디에도 죽음이나 절망이나 고통이 없습니다. 대신 가슴 벅찬 감격과 환호와 영광만이 넘쳐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의 역사와 새로운 존재의 탄생

성령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 이 성령이 인간의 존재 안에 있는 죽음의 세력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8장에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성령”이라는 말이 봇물 퍼지듯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죄의 역사 앞에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성령의 도움으로 죄의 세력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성령의 역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십니다. 2절.

성령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십니다. 4절.

성령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십니다. 5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8절.

우리 죽을 몸을 살리십니다. 11절.

몸의 행실을 죽입니다. 13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께 합니다. 14절.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합니다. 15절.

우리의 연약한 바를 도우십니다. 26절.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십니다. 27절.



1. 왜 장로 교인은 성령에 약합니까?

2.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의 관계는 무엇이며 그 뜻은 무엇입니까?

_____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3. 과학의 논리와 성령의 역사

과학의 논리의 특징 : _____ 와 _____ 의 논리

주관/객관(objective, 물화)

감정/논리

인성/신성

갈릴레오, 데카르트(_____ 사고 방법 창조), 뉴턴(우주는 _____)

18세기 : _____ 의 반발(블레이크, 괴테...)

19세기 : 기계론의 등장

20세기초 : _____ 적 생물학(_____, _____, _____ 을 강조)

※1920년 양자 물리학

“원자 이하 수준의 소립자들은 개별적인 실체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않으며, 여러 가지 관찰과 측정 과정에서의 상호 연관성, 또는

상호 관계로서만 이해될 뿐이다. 다시 말해, 소립자들을 사물들(things)이 아니라 사물들 사이의 상호 관계이며 이 상호 관계는 다시 다른 사물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 관계이고... 양자론에서 우리는 어떤 '사물'도 찾을 수 없다. 우리는 항상 상호 관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다." (카프라, 50, 생명의 그물)

생태학 : 지구 가족(oikos)에 대한 연구. 지구라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들을 서로 연결지우는 관계에 대해 연구하는 학문. 1866년 헤켈(Ernst haeckel, 독일 생물학자)

4. 성령의 역사는? 주관적, 감정적, 그리고 신적? 믿을 수 없는 것?

5. 과학적 논리의 문제

환경의 파괴, 관계의 파괴(나와 그것의 관계, 대립의 관계, 정복의 관계...) 과학은 본래적으로 _____

6. 사도 바울의 증거: 왜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까?

Sin 과 sin의 차이

7. 바울의 증언

“_____ 행하지 않는다”

8. 바울 자신의 고백은?(롬7:24)

9. 사람의 네 차원은?

- 1) 나(self): 자기 발견, 자기 성취...
- 2) 환경(Environment)
- 3) 공허(void): _____에 대한 두려움, _____, _____, _____.
- 4) 거룩(holy)

10. 어떻게 공허의 차원을 극복합니까? (롬8:1)

11. 성령의 논리는?

_____의 본성에 의존하는 논리로서,
서로 _____을 인정하면서 하나 되게 함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더라!”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지니라”

12. 로마서 8장에 따라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적어보십시오.

여덟 번째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할까요?

이 질문은 기독교인에게 단지 신앙의 지평을 넓혀주거나 지식적인 만족을 주는 질문이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은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일 뿐 아니라 세상을 위해 부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위해 부름 받았다는 사실을 소외한 채 기독교 신앙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세상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잘못된 관계를 가진다면 기독교신앙 자체의 균열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빛은 세상을 밝히는 빛이요 소금도 세상의 맛을 위한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할 때 당연히 세상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곳도 바로 이 곳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의 기관입니다. 교회는 항상 세상을 품어야 하며 세상을 위한 사역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합니다. 예배, 선교, 교육, 교제, 친교들의 모든 사역들도 궁극적으로는 세상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세상이 죄로 가득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세상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은 곧 세상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이 시간에는 기독교인이 가질 바른 세상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세상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든 면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사고방식도, 가치관도, 도덕관도, 심지어 인식론까지도 영향을 받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점을 구체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말하지 못한다할 지라도 우리 모두에게는 세상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가진 숨겨진 관점을 드러내고 이를 성경에 따라 점검하는 일입니다. 성경은 첫 번째 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선포합니다. 이 선포는 기독교의 근본이며 성도들의 근본을 이루는 선포입니다. 기독교는 이 선포에 따라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방법을 결정하며 선과 악을 규정합니다. 어떤 세상관이 바른 관점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신학자 리처드 니버의 분류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니버는 『그리스도와 문화(Christ and Culture)』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관점들을 보면서 우리를 점검하며 바른 관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1)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Christ Against Culture)

먼저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의 모델입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교회와 세

상은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는 구조로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그리스도인이 좇을 유일한 권위자로 인정하고 문화의 권위는 단호히 거부하는 비타협적 입장입니다. 톨스토이로 대표되는 이 모델은 “거룩”이 핵심적인 가치로서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자세와 성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 이 모델을 세상과 교회를 둘로 나누어 세상을 정죄하는 이원론적인 입장을 가지는 바람에 마르시온과 같은 이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2)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

이 모델은 교회와 세상의 갈등이나 긴장을 전혀 인정하지 않으면서 예수는 위대한 도덕 선생으로 존경합니다. 아벨라르는 “그가 육체 가운데 있을 때 행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19세기가 되면서 자유주의신학이 등장하면서 정통신학이 가르쳤던 인간의 전적 타락은 무시되었고 이제는 인간의 능력과 과학의 발달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로 인해 기독교는 극단적으로 인본주의 운동이 되어 버립니다.

3) 그리스도와 문화의 종합 (Christ Above Culture)

이 모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문화를 모두 긍정하되 주님을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모두 지배하는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클레멘스와 같은 신학자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 양질의 문화적 표준에 걸맞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중세의 토마스 아퀴나스는, “보편적인 선은 하나님 안에서만 발견된다. 오직 하나님만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다. 사람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행복은 오직 신의 본질을 바라보는 비전 이외에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영역들을 신학적으로 통일하

는 대작업을 이루었습니다.

4)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Christ in Parallel with Culture)

이 모델을 따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문화에 대한 책임을 서로 구별하는 동시에 그 둘을 함께 붙들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기차의 철로와 같이 두 철로를 인정하되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병존으로 대할 것으로 주장합니다. 비록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지만 그래도 선한 것이 남아 있음을 인정해야 하며, 불완전하나마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5) 문화의 변혁자 (Christ as Transformer of Culture)

이 모델은 교회는 세상 속에서의 누룩과 같은 존재로서 세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관점의 근본가정은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며 지금도 사랑하실 뿐 아니라 교회를 세우신 것은 바로 세상을 다시금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라는 신앙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나 교회를 세상 속에 세우신 것 모두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은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교회는 항상 세상 안에서 누룩이 되어 변화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질 자세는 마지막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를 모두 지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는 끊임없이 죄와 고통이 나타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고통을 품으면서, 이 땅을 회복하

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첫 번째 모습을 가졌습니다. 세상과 교회를 대립 관계로 설정하면서 세상을 정복하려는 모습을 가졌습니다. 중세의 십자군이 대표적입니다. 오늘날도 기독교는 세상적인 방법을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를 기독교왕국(Christendom)이라고 부릅니다. 기독교왕국이란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후부터의 시대를 말합니다. 때로는 교회들이 “기독교왕국”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멀리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다음 도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기독교 왕국 (Christendom)
범위	세상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회
생명에 대한 이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교인의 생명이 중심
교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위해 존재	자체적인 확장
성도	세상 속에서의 사명자	교회의 일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십자가(사랑과 섬김)	힘
중심 가치	보편적 가치(의, 평화, 기쁨)	교회적 가치 (충성 봉사 섬김)
구원	모든 영혼과 세상	개인 구원
역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힘 있는 자
믿음	하나님의 나라 위한 사명	구원과 축복의 도구
교회의 직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직자와 평신도로 구분

물론 하나님의 나라와 기독교왕국을 도표로 구분할 만큼 선명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부분들이 서로 겹치거나 함께 합니다. 다만 우리의 생각을 명료하게 하기위해서 도표를 사용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만물과 모든 생명을 포함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 회복이 가장 우선적인 관심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연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동물과 식물, 땅 속에 있는 광물까지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대상입니다. 세상 모든 권세의 영역 또한 포함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의료,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부여되지 않습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지음 받은 생명이라면 하나님의 은총은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부름 받은 기관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 받은 것은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자체적인 왕국에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원에 관심을 더욱 가져야 합니다.

성도들도 부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며 이름을 창대케 하신 것은 세상에게 복이 되기 위함입니다(창12).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로 구원 받은 것은 우리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세상의 구

원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직 십자가만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에 십자가 외에는 모든 길을 거부하셨습니다. 돌로 빵을 만드는 길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는 길도, 세상 권세의 길도 거부하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이 가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모든 사람의 소망에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의 가치가 있습니다. 바른 사람이 되기 원하는 소망, 바른 사회가 되기 원하는 소망. 이웃과 평화롭게 지내며 나라와 나라가 평화롭게 지내며 사람과 자연이 평화롭게 지내는 소망, 나아가 삶에 있어서 일에 있어서나 기쁨을 갖기 원하는 소망입니다. 성도들은 이러한 보편적인 가치를 가짐으로서 세상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죽고 나서 가는 천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바라시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위해 헌신하시기를 바램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 큰 민족이 되고 복을 받고 이름이 창대케 된 것은 바로 이 땅의 생명들을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함 때문입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역사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터전입니다. (예언서를 포함하여) 구약성경의 절반 이상이 역사와 관계되어 있으며 신약의 모든 사건들도 종

말이라는 역사의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역사의 흐름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역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이해도 달라져야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는 믿음을 너무 구원에 국한시켜 생각함으로 인해 믿음이 요구하는 사명을 등한히 했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계약으로 나아가야 하며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명에 동참해야 합니다. 믿음이 구원 받는 것에만 머무를 경우 자칫 이기적이 되거나 이 땅을 등한시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직제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모두가 부름 받은 사명자입니다. 모든 성도들은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사역을 감당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벧전2:9). 특정한 사람만이 소명을 받았거나 특정한 사역만이 거룩하다고 구분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1. 교회와 세상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어떤 관계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습니까?”

- 1)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Against
- 2) 문화에 속한 그리스도 Of
- 3) 그리스도와 문화의 종합 Above
- 4) 문화와 역설적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 Parallel
- 5) 문화의 변혁자 The Transformer: _____ 과 같은 존재

2. 하나님의 나라(Kingdom of God)와 기독교 제국(Christendom)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기독교 왕국 (Christendom)
범 위	세상의 모든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등)	_____
생명에 대한 이해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_____의 생명이 중심
교 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위해 존재	자체의 _____
성 도	세상 속에서의 사명자	_____의 일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	십자가(사랑과 섬김)	_____
중심 가치	보편적 가치(의, 평화, 기쁨)	_____가치(, ,)
구 원	모든 영혼과 세상	_____구원
역 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	_____있는 자
믿 음	하나님의 나라 위한 사명	구원과 _____의 도구
교회의 직제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성직자와 _____로 구분

3. 기독교 신앙의 재정립

- 1) 하나님의 나라는 _____ 과 모든 _____ 을 포함
- 2) 교회는 _____ 위해 부름 받은 기관
 성도들은 _____ 사명자들
- 3) 오직 _____ 만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
- 4)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_____ 가치
- 5) “구원” 은 전통적으로 말하는 죽고 나서 가는 _____ 이 아님
- 6) 기독교 신앙은 _____ 에 깊은 관심을 가짐
- 7) 전통적으로 너무 _____ 에 국한시켜 생각함으로 인해 믿음이 요구하는
 _____ 을 등한히 함
- 8)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는 _____ 부름 받은 사명자!

4. 하나님의 나라 육하원칙

- 1) 언제?
- 2) 누가?
- 3) 어디서?
- 4) 무엇을?
- 5) 어떻게?
- 6) 왜?

Memo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_ 골로새서 1:20



Memo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_ 골로새서 3:2,3



Memo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
럽게 하려 하시며 _ 고린도전서 1:27



Memo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_ 갈라디아서 6:9



Memo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_ 로마서 6:11



Memo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_ 잠언 16:9



Memo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_ 고린도전서 1:30



Memo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_ 고린도전서 1:18



Memo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_ 로마서 6:11



Memo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_ 잠언 16:9



Memo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_ 에베소서 4:32



Memo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_ 히브리서 4:15



12단계 개관

왜 우리는 신앙을 가질 수 밖에 없는가?

성경의 기본 I

성경의 기본 II

성경 전체의 맥을 잡아라! 성경의 파노라마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

성경의 중심 이야기들, 성경의 중심 주제들 II

성경과 영성

성경과 삶의 과제 I

성경과 삶의 과제 II

성경과 사회

성경과 타종교, 이단

성지순례